

# 광주 중고명품 매장이 뜬다

### ‘고이비토’ 등 온-오프라인 판매점 10여개 성업 중

### 가방·시계·지갑·의류 등 40~50대 여성고객 많아

불황에도 명품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중고명품 시장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쓰던 명품을 팔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다보니 중고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유연해졌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에서도 온·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중고명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광주에는 ‘고이비토’ 등과 같은 중고명품 프랜차이즈 판매점을 비롯해 백화점 인근과 상무지구 등의 소형 매장을 포함 10여개가 성업중이다.

명품 가방을 구입하기 위해 백화점 인근 중고명품매장을 찾았다는 주부 임모(41)씨는 “맘에 드는 명품 가방을 장만하기 위해 인터넷에 들렀다 이 곳을 알게됐다”며 “중고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정도로 상태도 좋고 무엇보다도 맘에드는 명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 오모(37)씨는 최근 행편이 어려워 선물 받았던 롤렉스 시계를 전당하기 위해 중고명품매장을 방문했다. 온라인 매장에 올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원하는 가격을 받기 위해선 매장에 들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다. 오씨는 꼭 중고명품매장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돈이 급할 땐 가지고 있는 명품을 팔고 다시 여유가 생기면 최신 상품을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백화점 인근에서 두 곳의 중고명품매장을 운영하는 운영중 광주명품 대표는 “중고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주로 40~50대의 여성이다. 이는 명품을 구매할 여력이 되는 나이의 사람이 많이 찾는다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30대 젊은 여성과 남성의 발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백화점 인근에 위치해 있는 중고명품매장은 ‘진짜’ 부럽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명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매장에 전시된 명품은 약 100개로 품목은 가방·시계·지갑·의류 등이었다.

브랜드 역시 루이비통·샤넬·구찌 등 인기 있는 브랜드가 주를 이뤘다. 다만 여성용 제품이 위주고 남성용은 가방이나 지갑, 시계 정도였다. 특히 여성들의 ‘명품백’ 선호경향 때문에 진열대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백이 많았다.

중고명품의 매매 과정은 중고차 거래와 비슷하다. 먼저 업체에 매각이나 위탁 판매를 문의하면 전문 감정사가 제품의 가치를 판단, 가격을 매긴 뒤 거래가 진행된다. 그리고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다. 장물거래를 막기 위해 체계적인 판매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중고명품의 거래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고명품 판매자가 익명성을

보장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중고명품 중개 사이트 ‘필웨이’(FeeLWAY)에는 중고명품 판매 업체만 500개가 넘으며, 하루 판매 개수는 3500개 정도로 알려졌다. G마켓, 옥션 등 오픈 마켓 역시 구구스나 고이비토 등 유력 중고명품판매점과 제휴해 다양한 명품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최근 사랑방미디어가 만든 중고 전문 인터넷사이트 ‘사랑방 중고장터’가 지역 최초로 ‘중고명품숍’을 선보이며 중고명품시장에 뛰어 들었다. 중고명품숍은 개인이 소장한 중고명품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황이라지만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할 정도”라며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매입과 매매가 모두 증가해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쇼핑백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3일 광주신세계가 이번 겨울 사용할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으로 ‘Shinsegae LOVES Christmas’라는 글자와 눈꽃을 형상화한 쇼핑백과 선물상자를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 광주기업 ‘나노메탈코리아’ 국무총리표창

### 나노 리본 와이어 국내 첫 생산

### 벤처 활성화 유공 포상 선정

국내 최초로 ‘나노 리본 와이어’ (Nano Ribbon Wire)를 생산하는 나노메탈코리아(대표 김대성)가 오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벤처활성화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광주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인 이 회사는 순수 국내 기술을 통해 나노 리본 와이어 생산에 성공했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대량생산 기반을 갖춘 기술 집약형 강소기업이다.

나노 리본 와이어는 기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하네스(Harness) 케이블보다 가늘고 유연성이 우수하다. 특히 구리를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인발(금속을 뽑아내는 가공법)해 전자제품과 자동차, 의료기 등의 소형화 및 부피를 줄이는데 쓰이는 핵심부품이다. 리본 와이어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전량 수

입해 왔으며 현재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서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평동공단에 공장을 둔 나노메탈코리아는 나노 리본 와이어 개발을 위해 수십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했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2009년 국내 소재 제조기업 최초로 기술개발에서부터 생산설비 제작 및 대량생산까지 전 공정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기술특허 4개 분야 등록을 완료했으며 국내 대기업 납품은 물론 중국 및 북유럽 국가와 수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와이어가 사용되는 제품이 초소형화 및 정밀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에 맞는 R&D 및 기술개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쟁사보다 늦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기술력을 뛰어넘은 만큼,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exian@kwangju.co.kr

## 국립종자원, 내년 재배 벼 종자 내달 22일까지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2015년 봄 재배할 벼 보급종 공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2월22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 등에 우선 공급하는 물량 855t을 제외한 10개 품종 3555t으로 앞으로 수매와 정선결과에 따라 공급량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대상 품목은 새누리 1512t, 알미

벼 108t, 새일미벼 439t, 신동진 50t, 황금누리 802t, 호평벼 27t, 미품벼 65t, 소다미 183t, 운광벼 169t, 동진찰벼 200t이다.

종자공급은 내년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당 지역 농협을 통해 종자를 신청한 농업인에게 공급된다.

종자 신청·공급과 관련된 사항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061-323-0702)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망신주거식 빛독촉 금지 불법채권추심 처벌 강화

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주거식 빛 독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날발하던 불공정 채권추심행태도 금지된다.

연합뉴스



기아차 광주공장 ‘사랑의 김장나눔’

지난 22일 열린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문화대전’ 행사에서 김종용 기아차 광주공장장(왼쪽 두번째)과 이기근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기아차 노사 임직원들이 김장김치를 버무리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불우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6000만 원을 후원했다. (연합뉴스)

## 불법 주택 양성화... “내달 16일까지 신고 하세요”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곧 종료됨에 따라 이 혜택을 이용할 건축주들은 신고를 서두르라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

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1개월이 소요되므로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

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625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3 6 7 20 21 39	1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765,184,675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1,207,124	45
3 5개 숫자일치	1,393,181	1,654
4 4개 숫자일치	50,000	82,014
5 3개 숫자일치	5,000	1,354,445

#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기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가림)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층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무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